中國訪問記 〈연재〉

제공 : 裵 永 斗

〈完〉

(91. 8. 18~ 91.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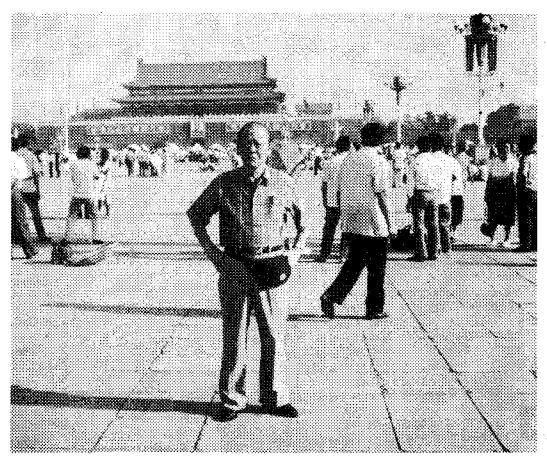
〈속〉우리들을 태운 봉고車는 一路 延吉을 向하여 먼지길을 되달렸다. 1時間가량 달린 후 中間村落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산삼과는 교포들이 결사적으로 덤비는 바람에 모두 몇 뿌리씩 사게 되었다. 소문에 中國한약재는 金浦공항에서 모두 압수한다는 바람에 버리기에는 아깝고하여 연길長白호텔, 北京호텔 등에서 배속에다 보관작업 하는데 한참동안 혼이 났다. 통째 먹어치우는 데는 매우 힘들었다. 白頭山산삼을 두 뿌리나 먹었으니 과연 효녀이 있을지? 이 산삼은 종자를 山에다 뿌려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수삼이나 같은 것으로 흔히 들었던 白頭山 진짜 산삼은 절대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못된다.

저녁 5時가 넘어서야 延吉에 도착 교포들이 경영하는 農産物市場에 (우리나라 시골市場과 흡사함) 들러 잠시 이곳 市場風景을 관광한后, 교포음식점에서 또한차례 우리음식을 포식하고 예약된 長白호텔에 들어가 이제는 귀국길이라 마음놓고 푹 쉬었다.

◇91년 8월26일 맑음.

예정코스는 瀋陽을 거쳐 北京으로 가게되어 있는데 비행코스가 변경되어 長春으로 가서 5時間쯤 체류하였다가 그곳에서 北京으로 直行한다고 하였다. 航空예약을 마음데로 변경하는 것도 異色的인 낭만이다. 5時間을 예정에 없던 長春市를 求景하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침 長白호텔 에레베이타 안에서 김일성뱃지를 가슴에 단 北韓사람 다섯을 만나게 되어 함께 내려왔는데 시종 나의 아래위를 훑어 보고 있었다. 아ㄱ이곳이 共産主義國家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하였으나, 여타지역에서는 가는곳마다 自由의 싹이 움터오고 있다는 것을 감하게 느꼈다. 이와같은 생각은 나만이 아니였을 것이다.

또 다시 포로페라 비행기로 약1時間의 비행끝에 유서깊은 長春市에 도착 하였다. 長春市는 日帝時 만주국 首都 新京으로 淸朝 마지막 皇帝 溥儀의 소위 위황궁(僞皇宮)이 있는 곳으로 人口約 2百22萬名의 吉林省 수도이다. 이 省은 교포들이 가장 많이 (약百20万정도) 살고 있고 특히 延吉市는 80%이상이, 龍井市는 90%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文物이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形成되어 낯익은 感이 들었다. 日帝 36年間 많은 동포들이 日帝를 피하여 남부여대 이곳 延邊일대(白頭山산록)까지 와서 간난신고 끝에 오늘날의 터전과 位相을 마련한 피와땀의 결정을 높히 평가하면서 길이 있다면 후원길을 터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5時間의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우선 마지막 皇帝『부의』가 거처한(日帝제공위황궁) 王宮을 관람하였다. 심양소재 淸朝皇宮에 比하면 새발의 피였다.



◇天安門광장에서 필자

日帝가 건축제공한 왕궁소재지는 長春市에서도 有名한 貧民소굴로 가난한 민심과 함께 살게 하므로서 位相과 뜻을 못펴게 하는 위압정책을 써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末期쯤 되어 현재의 地質宮을(中國古典式건축) 건립 溥儀로 하여금 移宮토록 하여 괴뢰政府로서의 위신을 세워주려고 하였으나 敗戰으로 인하여 끝내 이사를 못하고 中共軍에 의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不運의 一生을 마쳤다고 한다.

其 지질宮은 至今은 地質大學院 소속으로 이곳 젊은이들의 敎育요람이 되어 있었다. 원체 땅이 넓다보니 그 당시에 벌써 50万大관중이 일시에 集結可能한 大廣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오후 4時까지 市內 中心街를 둘러 보았으나 市街地 風景이 흡사 日帝時代 殘影을 연상케하여 中國다운 實感이 나지 않았다. 時間制約으로 깊은 곳을 살피지 못한 탓이리라?

17時30分 長春비행장을 이륙후 약 1時間半을 비행끝에 동경의 北京空港에 안착 하였다. 17時20分경이 되었을때 萬里長城이 보인다는 소리에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구불구불 첩첩산중 산등선을 이은 흰줄이 南北을 가로질러 끝없이 펼쳐진 관경은 흰 용이 운무하듯 환상적이였다. 이제 來日이면 萬里長城에 실제로 올라서게 되리라.

어둠이 깔린 공항로를 따라 北京市內로 들어가는 길은 한결같이 直線이고 넓고 가로수가 울창하여 마치 숲속을 지나가는 氣分으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시원 하였다. 途中 우리교포가 경영하는 一心酒家라는 飯店에서 우리式 저녁을 먹었는데 역시 中國의 심장부답게 음식맛도 最高에 가까웠다.

이윽고 마지막 코스인 호텔 天倫王朝飯店(DYNASTY HOTEL)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이 호텔은 中國에서 一流級으로 우리의 푸라자, 하이얏트 등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매우 훌륭하였다.

귀국길 마지막 코스라 모두가 건강하고 명랑한 상태로 푹 쉬었다.

◇91년 8월27일 맑음.

날씨와 더불어 우리 一行의 기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9時에 특별배려에 의한 대형관광버스로 天安門 자금성, 明皇13陵, 万里長城등 마지막 관광길에 나섰다. 첫번째 들어선 天安門廣場은 우선 그 크기에 놀랐다. 毛澤東기념관이 들어서기前에는 더 넓었는데 至今은 많이 좁아졌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넓이의 정확한 평수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여의도廣場과 개략 비교해 보면 폭은 넓은 편이나 길이는 짧은편이였다. 모택동 기념관의 것으로 매우 훌륭하였다.

◇만리장성 세째관문에서 필자

귀국길 마지막 코스라 모두가 건강하고 명랑한 상태로 푹 쉬었다.

◇91년 8월27일 맑음.

날씨와 더불어 우리 一行의 기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9時에 특별배려에 의한 대형관광버스로 天安門 자금성, 明皇13陵, 万里長城등 마지막 관광길에 나섰다. 첫번째 들어선 天安門廣場은 우선 그 크기에 놀랐다. 毛澤東기념관이 들어서기前에는 더 넓었는데 至今은 많이 좁아졌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넓이의 정확한 평수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여의도廣場과 개략 비교해 보면 폭은 넓은 편이나 길이는 짧은편이였다. 모택동 기념관에 들어가려는 관광객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아 시신관람은 생략하고(시대착오적인 인물의 미이라를 볼것까지야 없지 않느냐는 의견일치로) 바로 天安門을 통과 자금성으로 들어갔다.

이 天安門紫金城은 10世紀初에 이미 건축되어 5개의 봉건 王朝가 代代로 살아온 곳으로 9999개의 房間을 가진 世界에 둘도 없는 奧妙한 古城으로 많은 觀光客을 유치하고 있다. 그냥 뛰어가도 예정된 두시간이 소요된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만 하다. 나는 세째문을 통과하였을때부터 강한열기와 人波탓인지 현훈증이 또 일어나 도저히 도보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天安門을 다시나와 택시편으로 자금성후문으로 와서 一行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合流하여 明皇13릉에 들어갔다.

不幸이도 나는 자금성과 명황13릉은 수박 결할기만을 했다. 一行들은 그런데로 속속들이 관광을 했는데 나는 후일 비디오를 통해 再演해 보았지만 후회는 계속 남아 있을 것같다. 이제 마지막 코스로 萬里長城을 向해 約 2時間 北으로 달렸다. 2,200年前 秦始皇帝는 南으로부터의 침략은 별극정 없다고 판단 北쪽 오랑캐만 막으면 된다는 판단아래 이 구능일대를 萬里에 걸쳐 성벽을 쌓기 始作하여 秦, 趙, 燕 등 三國에 걸쳐 계속 增築以來 歷代王朝가 補強하여 왔으며 오늘날 남아있는 長城은 明朝때 修築한 것으로 되어있다. 정말 世界人類가 놀랄만한 最高의 건축기적물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기원220年前에 이루워졌다하니… 그리고 이공사를 위해 1만여명의 노예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며 흙을 山등에 지고 올라가 능선현장에서 굽어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다고 하니 當時 權勢家들은 그 권세와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기 위하여 人命을 초개같이 취급해 왔다는 증좌를 보는 느낌이였다. 밀려드는 觀光人波에 떠밀려 제3關門까지 올라갔다. 성벽에는 똑같은 간격으로 가슴팍까지 벽돌이 쌓여졌고 銃口와 弓口가 설치되 있는 것을 볼때 오늘날 近代戰에서의 步兵찰호형태와 步兵전술의 기본은 같은 것이구나하고 감하게 느꼈다.

이와같은 성벽에도 하자가 있어 딱한번 침입을 당해 무너졌다고 하니 바로 그 사람이 淸朝2代 皇太治(황타이치)가 明朝末을 쳐부수고 北京城을 점령후 日帝에 敗할때까지 淸國을 건국한 사람이다. 연결된 關門을 올라가 봤자. 똑같은 형태의 연속임으로 이쯤하여 기념촬영을 몇번하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이다. 아! 永遠한 기념비적 中國視察訪問定期 코스는 끝났다. 바둑판처럼 뻗은 60㎞가량의 北路를 南進하여 北京市內 다이나스티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北京市街를 관찰 했는데 한없이 넓고 조용한 田園都市로 90北京아시안게임 이후 매우 自由분망한 開放都市로 변모 되어 가고 있다는 어쩔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2면으로 계속

傘下 支部 動靜

▲協會本部

◎91年度 농림수산분야 施策및 식량증산 有功者 포상실시 : 91年度 政府 施賞계획에 의거 本會「宋景大」會長께서는 『석탑산업훈장』을 지난 12月30日 수령한바 있다.

本會창립이래 처음있는 경사로서 모든 任職員및 산하 會員一同은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으며 이를 계기로 농림수산분야 시책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92년포상계획에는 보다 많은 분이 施賞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1月9日 수원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성낙술」 박사 一行 6名이 本會事務局및 中央共販場을 來訪 見學하면서 앞으로의 栽培기술공급및 栽培단지 造成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意見을 모으고 주기적으로 兩實務陣이 相互訪問을 가지면서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형모』全南支部長 任命狀 수여식 : 지난 1月10日 新任全南支部長에 對한 任命狀이 수여되었다.

▲산하 支部綠生會 개최

○강원도支部록생회 : 지난 1月4日~5日에 걸쳐 『최윤철』록생회장 主管으로 92년 첫번째 定例록생회를 原州市에서 개최하고 今年度의 全國的 生藥유통 전망과 支部조직의 內實化 方案등에 對한 意見을 交換하면서 道관하 生藥分野 유대를 한층 強化하였다.

○경남도 支部 : 지난 1月5日 『김창한』록생회장 主管으로 진주시에서 92년 첫번째 月例록생회를 召集하고 今年度 관하조직의 단합과 유대강화 유지에 더욱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釜山직할시 支部 : 지난 1月8日 『朴吉夫』支部長 主管으로 92년 첫번째 綠生會를 召集하고 당면현안인 現支部長의 도미유학 辭退로 인한 補궐선임과 支部조직 재정비 強化 방안을 모색한바 있다.

※이날 主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新任 支部長 선출및 任員개선 : 『권순직』 진주所長을 支部長으로 승격발령 上申, 박길부 전지부장을 고문으로 추대, 정삼조 동래구소장을 副支部長으로, 김수동 강서구소장, 부산시 공판장장을 綠生會 총무로, 강차순 남구공판장장을 綠生會 감사로, 최맹호 금정구소장을 綠生會 감사로. ②해운대구 공판장장 최수대 : 복직건의 ③관하록생회조직보강 : 출장소장3명을 區所長 또는 공판장장 등으로 승격 보충키로 결정 ④이임하는 前支部長 : 공로패 上申(本部) ⑤其他 생약기금등 자체관리강화 검토

○경기도 支部 : 지난 1月9日 『김성배』이천군 소장 主管(록생회총무)으로 今年度 첫번째 綠生會를 召集하고 自體 內實化 方案 및 生藥유통에 대한 展望등을 相互 交流하면서 유대를 強化한바 있다.

◇전남지부장 임명장 수여

人事發令

임 전라남도 지부장 정형모 91·12·23일부
부산직할시 지부장 권순직 92·1·13일부